

한국농어촌공사 'KRC SAFETY 협의회' 개최로 중 대재해 예방에 총력

✎ 김육봉(=호남) 기자 | ☎ 승인 2025.02.28 14:06



[사진 제공=한국농어촌공사]

[폴리뉴스 김육봉(=호남)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7일 본사에서 'KRC SAFETY 협의회'를 개최하고,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.

이번 협의회는 안전관리 강화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. 행사에서는 ▲안전관리 현황과 발전방안 ▲건설현장 안전관리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한 발제와 자유토론이 이뤄졌다. 이어 전국 안전관리담당자는 각 지역본부의 안전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결의했다.

정인노 부사장은 “최근 이어진 대형 사고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”라며 “안전은 비용과 속도,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”라고 강조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 공사는 지난해부터 안전관리 전담 조직인 '안전관리센터'를 각 본부에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, 안전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불시 점검 등 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. 또한, 자기규율 예방체계* 정착과 스마트 안전관리 등 선제적 안전관리도 추진하고 있다.

김태헌 안전혁신실장은 “공사는 중대재해 대응과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”라며 “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김육봉(=호남) 기자 news1@polinews.co.kr